

### 종부형태가 돼지의 번식성적에 미치는 영향

김인철, 이장희, 진현주, 손영곤, 박창식\*, 김창근\*\*

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(kickic@rda.go.kr), 충남대학교\*, 중앙대학교\*\*

본 연구는 종부형태가 이유한 암퇘지의 번식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유후 4 ~ 6일경에 자연발정이 발생되어 수정적기라고 판단되는 암퇘지에 12시간 간격으 로 각각 자연종부 2회, 인공수정 2회 및 혼합교배(자연종부 1회 + 인공수정 1회)의 형태 로 나누어 종부하고 분만율과 산자수를 조사하였다.

분만율은 자연종부 78.5%, 인공수정 76.3% 및 혼합교배 76.0%로 나타나 종부형태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총산자수는 자연교배 9.89두와 인공수정 10.04두의 단독 종부 형태보다 혼합종부형태가 10.26두로 높게 나타났다(P<0.01).

Table 1. Fertility results of weaned sows with 3 different mating methods

Mating method	No. of sows, head	Farrowing rate, %	Litter size(total born), head
Natural service(NS+NS)	180	78.5	9.89 ± 0.08 <sup>a</sup>
Artificial insemination(AI+AI)	279	76.3	10.04 ± 0.06 <sup>a</sup>
Mixed mating(NS+AI)	152	76.0	10.26 ± 0.14 <sup>b</sup>

<sup>a,b</sup>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colum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(P<0.01)

Key words) 자연종부, 인공수정, 혼합교배, Farrowing rate, Litter size  
(Suppor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. No.100054-3)